

News Release

삼양패키징, 국내 1위 사업 역량으로 친환경 시대 이끈다

삼양패키징(조덕희 대표)은 1979년 국내 최초 페트병 생산, 1995년 국내 최초 페트병 재활용 공장 건설, 2007년 아셉틱(무균) 음료 충전 사업 진출 등 페트병 및 재활용, 아셉틱 음료 생산을 선도해 왔다. 2015년에는 아셉시스글로벌(구 효성 패키징PU)을 흡수 합병하며 아셉틱 음료 및 페트 용기 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국내 1위 업체로 도약했다.

삼양패키징은 현재까지 페트 패키징과 아셉틱(무균) 음료 생산 양대 영역에서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 모두 국내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다. 삼양패키징이 보유한 35개의 페트 패키징 생산 라인과 5개의 아셉틱 음료 생산라인을 최대한 가동하면 연 31억개의 페트병과 14억 7000만병의 아셉틱 음료 등 연간 약 46억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삼양패키징은 작년 매출액 약 3600억원, 당기순이익 약 32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아셉틱 라인 5호기 증설로 아셉틱 음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술력으로 환경을 생각하다

삼양패키징은 플라스틱을 이용해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삼양패키징의 아셉틱 음료는 음료의 맛과 향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트병 경량화를 통해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준다. 고온 살균처리 한 음료를 페트병에 넣으려면 열에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페트병(내열병)이 필요한 반면 아셉틱 충전 방식은 무균 환경을 만들어 상온에서 음료를 페트병에 넣기 때문에 얇은 페트병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셉틱 방식으로 생산한 500ml 페트 음료의 용기 중량은 내열병 대비 약 10g 가벼워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삼양패키징은 아셉틱 음료의 시장 확대를 위해 아셉틱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고객과 적극 협업하고 있다. 음료 개발 전문 인력 및 아셉틱 파일럿 설비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개발은 물론 삼양패키징이 선제적으로 고객사에 새로운 컨셉트의 음료를 제안하기도 한다.

삼양패키징은 다양한 무라벨 페트병 생산으로 분리 수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벨이 없는 페트병은 분리수거 할 때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준다. 삼양패키징은 고객의 요청에 맞춰 라벨을 없애고 제품명과 로고 등은 양각으로 페트병에 구현하는 한편 페트병 경량화를 실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국내 최초의 무라벨 탄산음료 용기, 국내 최초의 무라벨 커피음료 용기 모두 삼양패키징의 기술력이 적용된 결과물이다.

삼양패키징은 환경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중

· 담당자 :정준호 팀장 (junho.jeong2@samyang.com 02-740-7188, 010-2581-9717)

최서연 차장 (seoyeon.choi@samyang.com 02-740-7552, 010-9004-4505)

이상준 사원 (sangjun.lee1@samyang.com 02-740-7231, 010-6650-8276)

이다. 무라벨 용기, 생산공정 고도화를 통한 페트 저감화 용기, 용기 구조 개발 등 분리 배출 편의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페트병 재활용 과정에서 물을 이용한 라벨 분리가 가능하도록 물에 뜨는 라벨 및 수용성 접착제 개발 등의 연구 활동으로 재활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국내 최초의 페트 재활용 업체, 삼양 패키징**

삼양패키징은 페트병 생산과 페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함께 영위해 페트병 생산, 유통, 재활용 사이클을 형성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삼양패키징은 1995년 미국의 퓨어텍(Puretec)사 설비를 도입해 국내 최초의 페트 재활용 공장을 경기도 시화공단에 건설했다. 이후 무색, 유색, 복합 재질을 구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증설해 총 3개의 재활용 라인을 갖췄다. 이를 통해 페트 시트(Sheet)시장, 자동차 내장재 컴파운드 시장, 단섬유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국가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삼양패키징은 2023년을 목표로 재활용 사업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고도화된 재활용 설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페페트를 재활용해 의류 생산에 쓰이는 장식용 원료, 페트병 원료 생산이 가능한 설비도 해외에서 개발되었다. 삼양패키징은 관련 설비를 도입해 국내 페트 재활용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중이다. <끝>

■ **사진자료**

1. 삼양패키징 광혜원 공장의 음료 생산 공정



2. 삼양패키징의 페트 용기 생산 공정

- 담당자 :정준호 팀장 (junho.jeong2@samyang.com 02-740-7188, 010-2581-9717)
- 최서연 차장 (seoyeon.choi@samyang.com 02-740-7552, 010-9004-4505)
- 이상준 사원 (sangjun.lee1@samyang.com 02-740-7231, 010-6650-8276)



3. 올해 3월 실시한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인 '고고 챌린지'에서 조덕희 대표(가운데)가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삼양패키징 조덕희 대표는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며 페트병 표면의 라벨은 제거하고, 투명 페트병을 유색병과 섞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 끝 >

- 담당자 :정준호 팀장 (junho.jeong2@samyang.com 02-740-7188, 010-2581-9717)
- 최서연 차장 (seoyeon.choi@samyang.com 02-740-7552, 010-9004-4505)
- 이상준 사원 (sangjun.lee1@samyang.com 02-740-7231, 010-6650-8276)